

유소연 또 마지막 홀에서 눈물

LPGA 호주오픈, 서희경과 공동 2위

19세 코르다, 연장 접전 끝 생애 첫 우승

유소연(22·한화)과 서희경(26·하이트)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시즌 개막전인 호주여자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어렵게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과 서희경은 12일 호주 로열 멜버른 골프장(파73·6천505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나란히 최종합계 3언더파 289타를 기록했다.

유소연과 서희경은 제시카 코르다(18), 루이스 스테이시, 브라타니 린시컴(미국), 훌리에타 그라나(파리파이) 등 동타를 이룬 다른 4명의 선수와 연장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2차 연장전에서 유일하게 버디를 낸 코르다에게 우승 트로피를 넘겨줬다.

유소연과 서희경은 18번홀(파4)에서 열린 1차 연장전에서 똑같이 파를 기록하고 다른 4명과 함께 또다시 18번홀에서 2차 연장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3명의 두 조로 나뉘어 진행된 2차 연장전에서 앞 조에 속한 유소연과 서희경은 각각 보기와 파를 기록했다.

그러나 뒤따른 플레이인 코르다가 유일하게 장거리 버디 퍼팅에 성공해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7월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유소연은 지난 5일 끝난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RACV 호주여자 마스터스 대회에서도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을 허용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 대회 연속으로 뒷심 부족에 시달렸다.

또 지난 시즌 LPGA 신인왕에 빛나는 서희경은 이번 시즌 첫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지만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연장전은 1999년 '지미파 콜로거 클래식'에서 6명이 나선 연장전에서 박세리(34)가 우승한 이후 13년 만에 최다 선수 출전 LPGA 연장전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유소연과 서희경을 꺾고 우승한 코르다(19)는 체코 출신의 테니스 선수인 페트르 코르다(44)의 딸로, 2010년 월리파이스쿨에서 2위에 올라 이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신인이다.

아버지 페트르는 1998년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 남자 단식에서 우승한 스포츠 스타로, 코르다가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했다. 코르다와 페트르는 호주에서 각각 테니스와 골프로 주요 대회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부녀의 인연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19살 챔피언의 발랄한 세리머니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 준비에 한창인 수영스타
박태환(23·단국대)이 호주 지역대회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
다.

박태환은 12일 오후 호주 시드니의 시드
니올림픽파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뉴사
우스웨일스 스테이트오픈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500m 경기에서 14분47초38
의 한국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
쳐 금메달을 끌었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때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 14분55초03를
5년2개월여 만에 7초65나 앞당겼다.

박태환은 자유형 400m와 200m에 이어 1,



500m에서도 우승하며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하인스 워드 방출 위기

피츠버그, 재계약 불투명

미국프로풋볼(NFL)의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6)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방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뉴스 코너인 'NFL 네트워크'는 피츠버그가 워드의 기량 저하

와 선수연봉총액 상한(샐러리캡) 등을 고려해 워드를 다음 시즌 선수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워드는 "소문에 대응하고 싶지 않지만 늘 말해왔듯이 나는 선수생활을 피츠버그에서 마치고 싶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보도에 반박했다.

그는 피츠버그에 남기 위해 연봉을 삼각하는 방안을 구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자유형 1500m 한국新

호주대회, 200m·400m 등 3관왕



500m에서도 우승하며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4대 유피겨 곽민정 10위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곽민정(19·
수리고)이 201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
대륙선수권대회에서 최종 10위에 올랐다.

곽민정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
케이팅에서 81.80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48.72점)를 합쳐 총합 130.52점으로
10위를 차지했다.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40.41점과 예술점수(PCS) 42.39점을 기록
했으며 감점(Deduction) -1점을 받았다.

곽민정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기
록한 개인 최고 성적(155.53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10
위권 진입에 성공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함께 출전한 윤예지(17·과천고)는 96.85
점으로 19위를 차지했고, 서채연(16·오륜
중)은 94.95점으로 21위에 올랐다.

윤예지는 2008년 취임한 이 회장은 종목별연
합회를 29개에서 41개로 늘리는 등 생활체
육 발전에 기여했고, 지난 11월에는 한·중
생활체육교류의 한국단장으로 전국 생활체
육 동호인들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
문해 중화전국체육총회와 교류를 하는 등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회장은 "보다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
에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
를 선용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더 높고 성숙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

라운드 연장접전 끝에 극적으로 우승한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우승컵을 앞에 두고 공중도
약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개막전 'ISPS 핫주 여자오픈' 4